

예배 및 모임안내

2020-28호 2020년 07월 12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19	07. 26	08. 02
대 표 기 도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한명희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막6~16장, 눅1~4장)
2.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3.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4. 한국 방문 - 김민혜 자매(15일)
5.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36장 다같이
 기 도 Gebet 한명희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신 33 : 26 - 29 (구 p318)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5. Moses 33:26-29) 행복한 사람인가요?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438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박재기 집사

별수 없는 쥐

인도의 한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는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변한 쥐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해 있었습니다. 개 때문이었습니다. 마술사는 다시 개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냥꾼이 들고 있는 총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쥐로 되돌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주간 코에 대한 조직검사가 있었습니다. 살을 때 낸 부위가 지혈이 되지 않아 4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담당 인턴이 최선을 다했고 친절했지만 경험이나 기술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밤새 피를 흘리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위축성 비염이라는 병명처럼 코 벽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갔고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보다 크시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용기가 났고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며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날라리 집사의 격려 / 박찬규

***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전화를 걸 때 결코 자동 응답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 Lebadin -**